

필리핀, 엘리뇨 영향으로 경제성장 소폭 둔화

국별조사실

- 필리핀의 농업부문은 국내총생산의 20%를 담당하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는 낮으나 전체 노동력의 40%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산물의 가공, 유통을 통해 여타 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데
- 상반기중 엘리뇨 현상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여러 차례에 걸친 태풍의 영향으로 이미 예상되었던 것처럼, 3/4분기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0.4% 포인트 하락하여 전체 GDP 성장률에도 0.1% 포인트 감소요인으로 작용함.
-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, 필리핀 폐소貨의 약세기조 계속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기적으로 연간 4% 내외의 경제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□ 3분기 경제성장 소폭 둔화

- 2분기에 지난 5년간 최고의 경제성장률 4.8%를 기록하였던 필리핀 경제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처럼 8월로 접어들면서 엘리뇨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의 산출량이 감소하며 3분기까지 연평균 3.8%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.
 - 2분기에 4.8%의 성장률을 보였던 제조업부문도 3분기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1.3%로 하락
 - 엘리뇨의 간접적 영향으로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등 일부 제조업의 위축이 우려되었지만 낙폭이 예상보다 심각하며 제조업 가동률도 70%에 머무르고 있음
- 필리핀 개발예산조정위원회(DBCC)도 2003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5.3%에서 4.7%로 재조정하였으나,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은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4% 내외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음.

□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

- 전자제품 수출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전자부품의 수입이 9월에도 75.8%나 증가함으로써 향후 수출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. 그러나 이들 전자제품의 수출이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.
- 특히 재정적자가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IMF 및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.
 - 이미 7월에 연간 통제목표를 초과하였으며 연말까지는 GDP의 4.5%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 - 이와 같은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는 산업개발을 위한 인프라투자를 위축시키고 필리핀 폐소貨의 가치하락을 유발시켜 공공채무상환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

필리핀 폐소貨 연간 추이

PHP ↓ 53.5 +.03 PBAJ 53.49/53.51 PBAJ Curncy GP
 At 11:03 Op 53.42 Hi 53.67 Lo 53.42 Prev 53.47
Market Price PHP Curncy 1/5
 Range 1/ 1/02 - 12/ 3/02 Period 0 Year to date
 Upper Chart: 3 Market Price Moving Averages



자료 : Bloomberg

□ **완만한 경제성장 추세가 중기적으로 계속될 듯**

- 엘리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농업부문의 산출이 감소되고 간접적인 영향으로 일부 제조업에서 가동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민간소비의 증가와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음.
- 그러나 200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고통이 뒤따르는 구조개혁을 강행하기도 어렵고, 사회 전반적인 부패로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.
- 다만, 2003년 하반기부터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필리핀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5년간 4% 내외의 완만한 경제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임.

책임연구원 이승건 (☎ 6654)
saintlee@koreaexim.go.kr